

권영창 회장 경주중친회 방문



권영길 경주중친회장이 권영창 대총회 회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권영창 회장은 6월 10일 12시 20분 경주시에 위치한 경주중친회(회장 권영길)를 방문했다. 권영길 중친회장을 비롯하여 권오신 운곡서원운영위원장, 권혁만 총무, 권원수 박사, 권용호 총무위원 등 경주중친회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영길 회장이 권영창 대총회 회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방문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권영창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주중친회에서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지금까지 각종 단체에 참여해 왔는데 그걸 바탕으로 열심히 하겠다. 우선 대총회 사무실을 활성화하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겠다. 특히 안동권씨 1100년이 되는 해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큰 과업을 안게 되었다. 피를 부릴 이유가 없다. 사업계획을 하나하나 준비하여 확 달라지는 대총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영길 회장은 환영사에서 경주중친회에 안동권문의 어른신이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감사하다. 유서깊은 운곡서원에 앞으로 자주 오셨으면 한다. 경주중친회도 적극 도와 드리겠으니 대총회가 번영하고 생각대로 잘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오신 운곡서원운영위원장은 권원수 박사가 이따따 60그룹을 좌운공파에 기증했다. 그래서 좌운공파 연일제사에 이따따 60그룹을 200미터 조성해 놓았다고 말했다. 권영창 회장은 저는 겨우 영주시장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경험이 많아서 추대해 주셨다고 했다. 더구나 만장일치로 추대해 주셔서 부담감이 많다. 부산, 대구, 대전, 강릉, 광주, 제주 등 지방을 순회하면서 인일들과 족친들을 만나 뵙고 능동아카데미, 간담회, 인문 강좌, 보화 강좌 등을 통해 친목도 도모하고 애족심도 북돋워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영창 회장은 회비와 잔조금이 별로 많지 않아 대총회에 돈이 없다. 홍보도 겨우 3400여 부를 구득하고 있어 홍보 대금도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홍보 구득을 1만 부로 확대하려고 한다. 1만 부면 3억이다. 여기에 회비까지 하면 4~5억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시조 태사공 영정 제작도 시작해 보아야 한다. 이 중에 유물기록관이 비용 측면(40~50억 예상)에서나 추진하는 측면에서나 제일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물기

록관의 규모도 문제이지만 유물기관을 재료가 있어야 한다. 족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권오신 운곡서원운영위원장은 안동의 학부역사문화공원처럼 국비로 지원받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 그리고 홍보는 지역중친회장이 나서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나는 경주중친들이 100부 보도록 독려했었다고 말했다.

권영창 회장은 회비와 잔조금이 별로 많지 않아 대총회에 돈이 없다. 홍보도 겨우 3400여 부를 구득하고 있어 홍보 대금도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홍보 구득을 1만 부로 확대하려고 한다. 1만 부면 3억이다. 여기에 회비까지 하면 4~5억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시조 태사공 영정 제작도 시작해 보아야 한다. 이 중에 유물기록관이 비용 측면(40~50억 예상)에서나 추진하는 측면에서나 제일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물기

권영창 회장은 회비와 잔조금이 별로 많지 않아 대총회에 돈이 없다. 홍보도 겨우 3400여 부를 구득하고 있어 홍보 대금도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홍보 구득을 1만 부로 확대하려고 한다. 1만 부면 3억이다. 여기에 회비까지 하면 4~5억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시조 태사공 영정 제작도 시작해 보아야 한다. 이 중에 유물기록관이 비용 측면(40~50억 예상)에서나 추진하는 측면에서나 제일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물기

노총각 권영일 서울청장년회 사무국장



권영일(동정공파 34世) 서울청장년회 사무국장은 혼기를 놓친 노총각이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다. 그 결과 물로 기아자동차 그랜드 마스터에 등극했다. 그랜드 마스터는 자동차 판매 대수 4000대를 달성해야 오를 수 있는 자리로 우수 영업직원에게 주는 포상이다. 권영일 그랜드 마스터는 1993년 기아에 입사해 30년 동안 꾸준히 연평균 133대, 누계 4000대를 판매해 25번째 그랜드 마스터가 되었다.

권영일(동정공파 34世) 서울청장년회 사무국장은 혼기를 놓친 노총각이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다. 그 결과 물로 기아자동차 그랜드 마스터에 등극했다. 그랜드 마스터는 자동차 판매 대수 4000대를 달성해야 오를 수 있는 자리로 우수 영업직원에게 주는 포상이다. 권영일 그랜드 마스터는 1993년 기아에 입사해 30년 동안 꾸준히 연평균 133대, 누계 4000대를 판매해 25번째 그랜드 마스터가 되었다.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 <26>



권강현 편집위원장

<학림집>은 병조좌랑(兵曹佐郎)을 지낸 학림(鶴林) 권방(權訪, 1740~1808) 공의 시문집으로 원집(原集) 목판본 11권 6책과 속집(續集) 활자본 2권 1책을 합쳐 모두 13권 7책이다. 공은 안동권씨 시조 태사공 28세(世)로 추밀공파(樞密公派)이다. 자(字)는 계주(季周), 호가 학림이다. 부친은 권도(權濤, 1709~1788)로 1765년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에 합격하였다. 공은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1711~1781)의 문인으로 귀와(龜窩) 김굉(金垓, 1739~1816), 간암(巖巖) 이완(李完, 1740~1808), 표림(豹林) 김희적(金熙稷, 1742~1797), 와은(臥隱) 김한동(金翰東, 1740~1811) 등과 교류하였다.

1763년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1783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하였다. 1784년 10월에 소령원(昭寧園) 수봉관(守奉官)이 되었으며, 1787년 6월에 종부시(宗簿寺) 주부(主簿)가 되고 12월에 창릉령(昌陵令)이 되었다. 1792년 4월에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이 되고 6월에 전라도 도사(全羅道都事)가 되었다. 1793년 6월에 병조 좌랑이 되었다. 1794년에 <안동권씨족보> 갑인보(甲寅譜)를 편찬하고 서문을 지었다. 1802년 8월에 스승인 대산 이상정의 문집 교정에 참여하여 의성(義城)의 고운사(孤雲寺)에서 <대산집(大山集)>을 간행하였다. 1807년 6월에 전라도 도사가 되었으나 병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며 1808년에 낙강정(洛江亭)을 중수하였다. 사후인 1899년에 가선대부(嘉善大夫) 내부협판(內部協判)에 추증되었다.

한편 공의 생전에 능동(陵洞)의 태사공 묘소 산판(山版) 송사(訟事)를 해결한 공적이 있어, 대총회에 의해 2019년 10월에 능동재사(陵洞齋舍) 서쪽에 공의 사적비가 세워졌다.

공의 유문(遺文)은 중형(仲兄)인 권당(權諱, 1731~1812) 공이 아우의 유사(遺事)를 가지고 귀와(龜窩) 김굉(金垓)에게서 1812년에 행장을 받고, 양자(養子)인 권겸(權權, 1767~1820)이 대계(大溪) 이주정(李周楨, 1750~1818)에게서 묘갈명을 받고, 공의 유문을 정리하여 초고(草稿)를 집안에 보관하였다. 공의 손자 권책(權策, 1775~1861)이 집안에 보관되어있던 초고(草稿)를 바탕으로 편찬하고, 1844년에 정재(定齋) 류지명(柳致明, 1777~1861)의 발문(跋文)을 붙여, 목판본으로 11권 6책을 간행하였다. 이것이 원집(原集)이다.

그 후 공의 현손인 권재명(權在明, 1841~1904)이 속집(續集)을 간행하기로 계획하고, 원집을 간행할 때 시속(時俗)에 저촉된다고 하여 제외하였던 시문(詩文)과 부록(附錄) 글들을 다시 모아 1899년에 수당(修堂) 이남규(李南圭, 1855~1907)에게서 서문을 받았는데 끝내 책으로 발간하지 못하고 졸하였다. 뒤를 이어 역시 공의 현손인 권재중(權在中, 1861~1941)이 간행을 주관하여 성재(省齋) 권상익(權相翼, 1864~1934)에게서 교정을 받았으며, 권재명의 아들인 권태동(權泰東, 1869~1952)이 1931년에 예천(禮泉)에서 2권 1책을 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

원집 권(卷)1은 시 181수, 권2는 시 149수, 권3은 시 91수·소(疏) 2편, 권4는 서(書) 23편, 권5는 서 30편, 권6는 서 35편, 권7은 서 19편, 권8은 서 33편, 권9는 잡저 9편·서(序) 12편·기(記) 10편, 권10은 발(跋) 11편·상량문 3편·애사(哀辭) 6편·제문 25편·묘갈명 4편·행장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집 중에서 권3에 실려 있는 <병산서원정액소(屏山書院請額疏)>는 경상도(慶尙道) 유림을 대신하여 지은 것으로 병산서원에 대해 사액(賜額)해줄기를 청하는 소(疏)로서, 건물의 규모나 배치, 유림이 배향 인물을 숭배하여 받드는 범도에 있어서 조금도 성균관에 뒤지지 않는다면 사액의 당위성을 상소한 글이다. 편지글 가운데 권4에 수록된 <여권안백(與權完伯)>은 완백(完伯, 전라도 관찰사)으로 부임하는 섬서(陝西) 권업(權業, 1729~1801, 시조후 29세)에게 일곱 가지 조목에 대해 백성을 위하는 정치의 요체를 강조한 것으로, 지방 행정에서 각종 누적인 폐단의 혁파에 힘써 주기를 당부하는 글이다.

권9에 실려 있는 <안동권씨족보서(安東權氏族譜序)>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족보인 <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 이래로 1794년에 새로 족보를 간행하게 되기까지의 간략한 경위와 족보 편찬의 의의를 기술하였다. 한편 이 갑인보(甲寅譜)는 원보(原譜) 29권, 별보(別譜) 5권으로 모두 34권이다.

속집은 첫머리에 이남규(李南圭)가 1899년에 지은 서문이 있다. 권1은 시 19수·소(疏) 2편·서(書) 3편·서(序) 1편·변(辨) 1편·논(論) 2편·전(傳) 1편·제발(題跋) 3편, 권2는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에는 귀와 김굉이 지은 공의 행장, 대계 이주정이 지은 공의 묘갈명이 들어있다.

<의리변무소(義理辨誦疏)>는 1806년에 벽파(僻派)인 우의정 김달순(金達淳, 1760~1806)이 연석(筵席)에서 장헌세자를 신원(伸援)하는 만인소(萬人疏)를 올린 소수(疏首)인 이우(李瑀, 1739~1811) 등을 멀리 섬으로 귀양 보낼 것을 청하

학림집(鶴林集)

여 강진현(康津縣) 고금도(古今島)에 유배되자 그 억울함을 보내 유생을 대신하여 지은 상소문이다.

서문 가운데 <천휘록서(關揮錄序)>는 1792년 장헌세자의 30주기에 맞추어 영남 선비들이 신원 만인소를 올릴 당시의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집 안에 갈무리해 두고 세상에 내놓지 못하였던 기록인 <천휘록(關揮錄)>이라는 책의 서문이다. <김효자전(金孝子傳)>은 안동에 사는 김한창(金漢昌)의 효행을 기록한 것이다.

속집 맨 뒤에는 1929년에 성재(省齋) 권상익(權相翼)이 지은 지(識)와 1931년에 현손인 권재중(權在中)이 지은 지(識)가 있다.

다음은 공이 26세 되는 1765년에 지은 5언율시로 제목은 <암재(巖齋)에서 선생의 시에 삼가 차운하다 [巖齋伏次先生韻]>이다.

七架湖山舍(칠가호산사) 일곱 개 시령의 소소리 서재에는
千秋洛建書(천추낙건서) 천년 전 성리학 서적 가득하다네
精神塘月在(정신당월제) 마음은 연못에 잠긴 달빛 같고
音韻匣絃餘(음운함현여) 목소리는 거문고 줄에 남아있네
行遺須從近(행원수종근) 먼 길도 가깝게 시작해야하고
圖終自有初(도종자유초) 잘 마무리하면 처음을 잘해야하네
一般新意味(일반신의미) 한결같이 그 의미가 새로우니
歸掩席門廬(귀엄석문려) 돌아와 집안에 문 닫고 앉았네

위 제목의 암재(巖齋)는 대산 이상정의 문인인 김중주(金中柱, 1734~1779)의 호(號)로서 그의 서재 이름이다. 제1구의 호산(湖山)은 공의 스승인 이상정의 거주지인 안동 소호리(蘇湖里)에 있던 학사(學舍)를 말한다. 제2구의 낙건(洛建)은 정주학(程朱學)으로 정자(程子)가 낙양(洛陽)에서 살고 주자(朱子)가 복건(福建)에서 살며 강학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는 학림공이 스승 대산 이상정의 문하에서 학문할 때의 다짐을 말한 것으로 언학(言學)이다.

다음은 <봄날 수락대에서 노닐다 [春日遊水落臺]>라는 제목의 7언율시이다.

幾度仙區夢裏歸(기도선구몽리귀) 신선 사는 곳 꿈속에서 몇 번이나 찾아갔을까
重遊間共鶴忘機(중유한공학망기) 거듭 놀러와 학과 함께 한가로이 기심 없었네
流年那使青山老(유년나사청산로) 흐르는 세월이 어찌하여 푸른 산을 늙게 했나
晴日鷺驚白雪飛(청일백영백설비) 맑게 갠 날에 흰눈이 흩날리니 깜짝 놀랐네
春返巖阿花暗笑(춘반암아화암소) 봄이 비위 언덕에 돌아오니 꽃들 몰래 웃고
雲籠西景月微輝(운동서경월미휘) 구름이 서늘했빛 감싸니 달이 숨어 빛을 내네
塵間名利非吾事(진간명리비우사) 세상의 명예와 이익은 내가 힘쓸 일 아니니
卜築他時誓莫違(복축타시서막위) 훗날 여기에 집 지으리라 틀림없이 맹세하네

위 시 제목의 수락대(水落臺)는 경북 예천군 감천면에 있다. 서에(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이 고향을 왕래할 때 자연을 감상하며 쉬던 곳이다.

제2구의 망기(忘機)는 계교를 부리는 마음이나 교활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아무런 물욕(物慾)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 시는 학림공이 명리에 힘쓰지 않고, 봄에 사람 몰래 바위틈에서 피는 꽃이나, 해질녘에 구름 속에서 나타나 빛을 내는 달과 같이, 사람들에게 작지만 향기나 빛을 주는 삶을 살았다고 다짐한 것으로 언지(言志)이다.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시조 묘소 참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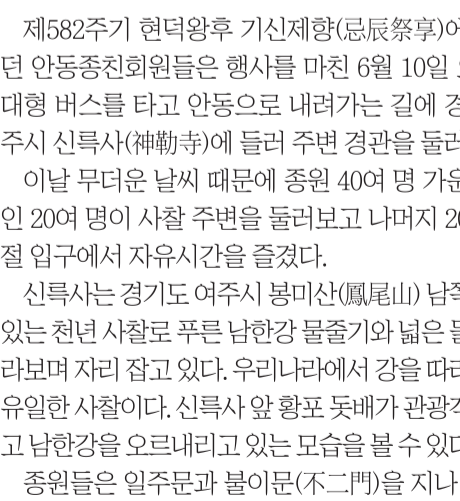


계묘년(癸卯) 6월 18일 일요일 오전 7시 30분 지하철 서울 사당역 6번 출구에서 회원 43명이 집결했다. 멀리 인천에서 의정부에서 새벽부터 나와서 가나관광 버스에 탑승하여 35분에 곧바로 출발하였다. 안동시 서후면 능동 시조 태사공 묘소에 10시 30분에 도착하여 간편하게 준비한 제물과 제주를 올린 후 분향을 하고 회원 전원이 참배했다. 기념촬영을 하고 남중공 단소로 이동하여 제물과 제주를 올리고 분향 후 참배하였다.

이 자리에서 권정수 전 회장이 간단한 보화강좌를 하여 더욱 의미와 보람이 있었다. 참배가 끝나자 12시 30분경 예천을 축복식당에서 불고기와 도가니탕으로 야주도 곁들여가면서 점심 식사를 하고 정기총회도 마쳤다. 이후 예천의 명소인 회룡포와 삼강주막을 거쳐서 즐거운 분위기로 상경하여 오후 8시 30분 경 사당역에 도착했다. 권영복 산악회장

권기성 대표회사

현덕왕후 기신제향 마친 안동중친회원들 신록사 탐방



제582주기 현덕왕후 기신제향(忌辰祭享)에 참석했던 안동중친회원들은 행사를 마친 6월 10일 오후 3시 대형 버스를 타고 안동으로 내려가는 길에 경기도 여주시 신록사(神勒寺)에 들러 주변 경관을 둘러보았다. 이날 무더운 날씨 때문에 중원 40여 명 가운데 절반인 20여 명이 사찰 주변을 둘러보고 나머지 20여 명은 절 입구에서 자유시간을 즐겼다. 신록사는 경기도 여주시 봉미산(鳳尾山) 남쪽 기슭에 있는 천년 사찰로 푸른 남한강 물줄기와 넓은 들판을 바라보며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강을 따라 자리한 유일한 사찰이다. 신록사 앞 황포 못배가 관광객을 태우고 남한강을 오르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중원들은 일주문과 불이문(不二門)을 지나 구룡루(九龍樓)를 쳐다 보니 그 뒤에 극락보전(極樂寶殿)이 보인다. 구룡루 앞에는 660년 묵은 은행나무가 서 있다. 높이 22m, 나무둘레 3m 크기의 이 은행나무는 1982년 10월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은행나무 옆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완성된 형태로 남아있는 보물 제226호 다층전탑(多層塔塔)이 있다. 전탑은 흙으로 구운 벽돌을 쌓은 탑이다. 안동에 있는 '범흥동 7층 전탑'과 같은 종류의 전탑이다. 전탑 옆에는 나옹 선사의 당호를 딴 강월헌(江月軒)의 6각형 정자가 보인다. 이밖에 동쪽 강변 바위 위에는 삼층석탑이 있는데 이 석탑은 내용을 화장한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탑이다. 이 신록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龍珠寺)의 말사(末寺)이며 신라의 승려 원효가 창건한 사찰이다. 조선 시대에는 영릉(세종대왕릉)의 원찰이다. 안동중친회원들은 신록사를 둘러본 후 대형버스를 타고 안동을 향하였다. 버스 안에서는 노래 자랑으로 열기를 풀우면서 안동에 도착, '촌가'식당에서 칼국수로 저녁을 먹고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

권영건 보도부장